



##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3.26~6.6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진실 | 미술비평

누군가 내게 박영숙 작가의 사진 가운데 어느 작업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번에 1988년작 〈마녀〉라고 답하겠다. 여섯 장 흑백사진의 실험적 시퀀스 안에서 후드를 쓴 익명의 젊은 여성은 유리의 반사광에 반쯤 가려있으며, 코스모스 무더기와 낮은 건물 사이에서 사물처럼, 아니 유령처럼 서있다. 그 작업은 사진가에 의해 세심하게 장악된 결과물이라기보다 어떤 흔들림, 어떤 발견의 순간이었다.

박영숙 작가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과 문화운동, 그리고 현대사진의 변곡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요하고도 독보적인 족적을 남겨왔다. 특히 〈미친년 프로젝트〉 시리즈는 한국 사회의 공고한 가부장제 억압 속 여성들의 모습을 담아낸 시대적 표상인 동시에, 1세대 페미니스트 동지들의 연대로 만들어진 집단적 발화로서,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을 상기하는 어떤 '들림', '풀림'의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하고 포착했다. 그렇게 박영숙은 인물사진이라는 영역에서 불온하다 여겨지고 배제되어온 여성적 표상을 여성의 주체성으로 긍정하고 전복하는 데 평생 노력해왔다.

때문에 누구나 단번에 느낄 테지만,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의외인 점은 사진들에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작가의 관심사가 인물사진에서 정물사진으로 바뀌었다고 단순히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그 최초의 순간, 〈마녀〉 작업의 시간성을 소환했다고 말한다. 사진 속에는 인물 대신 오래된 분첩, 빛바랜 웨딩드레스, 반짝이는 구슬이나 핀들, 오래전 여행에서 사온 은염사진 액자와 같은 소품들이 자리한다. 그것들은 영긴 나뭇가지와 어둑한 숲의 그림자 속에 이슬이슬하게 자리하며 부재하는 존재들을 대신하고 있다. 꽃자왈에서 찍은 이 사진들에서 작가는 내내 붙들고 있던 여성의 초상에 대한 어떤 전형(코스튬, 역사적 인물, 여성의 공간 등), 혹은 여성주의적 문제 제기에 대한 스스로의 강압을 내려놓은 듯하다. 그렇지만 마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침 광(光)이 스며드는 덤불숲에 바늘쌈, 인형, 랜턴, 고사리 등이 등성등성 걸터앉은 사진들에서 마녀라는 터부시되고 억압된 여성성은 이제 시대를 뚫고 나오기보다, 오랜 삶의 시간성으로 희미하고 아련한 빛을 발한다. 버려진 숲, 불모지에서 사물들의 기억을 통해 그녀들을 소환해내는 유희는 환상적으로 눈부시면서도 서늘하다. 자신의 몸뚱이로부터, 친구들의

초상으로부터 강렬한 여성적 외침을 만들어온 과거 작업들에 비하자면, 이 사진들은 숨죽인 채 울던 여인들, 무수한 익명의 여성을 위한 조용한 진혼제로서만 목소리를 갖는다. 여성의 주체성을 말하기 위한 긴장어린 연출과 구성은 다소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에 던져졌고 노년의 작가는 그걸 자신 바깥의 힘에 어느 정도 맡긴 듯하다. 일부 페미니즘이 자기개발 전략처럼 야심차게 장착되는 이 시절 때문인지, 부질없는 사물들로, 버려진 장소로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이 빛들이 왠지 더 오랫동안 다가온다. 어쩌면 그건, 김혜순 시인의 말대로, 인물을 내려놓은 그녀가 "바깥을 응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응시하게 된 여성"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위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10〉 C-Print 180×240cm 2019

아래 박영숙 〈그림자의 눈물〉 전시광경